

彷徨, 挫折, 그리고 自得

裴 宗 鎬
(圓光大 哲學科)

왜 哲學을 택하게 되었는가

나는 경남 山淸郡 生草面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사물의 眞相을 깊이 캐 보고자 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쑤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캐묻다가 꾸지람을 듣는 일이 많았었다. 더우기 늦게 둔 獨子로서 父母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버릇 없는 고질 장이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4세 때 부모님을 따라 咸陽郡 席卜面(지금은 咸陽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生草面 邑內(古邑)는 교향이므로 祖父母들을 뵈오리 자주 갔었다. 7세 때 할아버지께서 立春날을 기해서 붓글씨를 가르쳐 주셨기에 그 동안 배웠던 漢文字로 된 聚句를 써 보았더니 筆力이 있어 장래성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었다. 그러자 咸陽읍내 어느 漢藥房 老人한테서 大筆 글씨를 배운 일도 있다. 종이가 귀하여 주로 신문지에다 연습하였고 간혹 白露紙에 淨潔한 字도 있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두어 장 남아 있다는 옛 老人들의 말씀이었다.

8세 때 咸陽普通學校(지금의 국민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본래 音痴였기에 음악은 항상 丙을 받았다. 13세 때 초겨울 生母가 中風으로 유언 한마디도 없이 1주일만에 돌아가셨으니 家事形便上 아버지는 이듬해 부득이 再娶를 하리게 되

었다. 14세 때 晉州高等普通學校(지금의 진주 중·고등학교)에 입학, 여기서 위인전, 영웅전 등을 많이 읽어 보았는데, 나 같은 菲才도 장차 공부하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希望을 얻었던 것이다. 17세 때 日本으로 修學旅行을 간 일이 있다. 東京 어느 古書店에서 「老子神髓」라는 커다란 책 한 권을 사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말 토와 日本말 토로 많이 읽어 보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 하였다. 6·25 동안 때 가졌던 책은 거의 다 없어졌지만 그것만은 지금도 남아 있다.

15,6세 때 先親의 知己였던 閔仲鎬先生한테서 調息法修練을 듣고 나도 그대로 실천해 보기도 했었다. 방학이 되면 나의 貧血症을 고치기 위해 함양읍에 있는 한약방을 자주 드나들게 되어 漢方醫學의 상식적인 원리를 들은 일이 많았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주고보를 마칠 무렵 先親은 나를 洋醫에 적재라 하시고 그 방향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신 것 같았으나 나는 그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法學科로 가라고 타일러 주셨으므로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돌이켜 보면 과거 京城帝國大學(지금의 서울 大學校 前身)의 豫科 3년 동안의 학창시절은 내 一生을 통하여 가장 희망에 왔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敎養課程이라 하여 기초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기껏해야 1년 반 정도이다. 그러

나 당시의 예과는 3년간을 교양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범위는 넓고, 깊이도 상당했던 것이다. 그런데 예과 文科에 있어 甲類는 영어가 많고, 乙類는 독어가 많았으며, 漢文도 3년 동안을 가르쳤던 것이다. 나는 乙類를 택하였는데, 定員은 한 학급 40명이었고, 日인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따라서 甲乙類 합해서 소위 鮮人 학생이 27,8명이었는데, 이른바 內鮮一體란 美名下에 내가 입학할 때는 甲乙類 합해서 32명이었고, 예과를 修了할 때는 31명이었다. 本科에 진학할 때는 法文學部로 가게 되는데 거의가 法學部로 진학하는 것이 常例였다. 그런데 나 혼자만 文學部の 哲學科로 진학하려 하니, 선배나 동급생 그리고 주변 친지들이 모두 반대했고 집안에서도 물론 반대였다. 哲學을 하는 사람은 精神이 든 사람이란 것이었다. 뒤에 들은 일이지만 예과 후배들은 나를 '獨世靑靑'이라評했던 모양이다.

당시의 京城大學 철학과는 그 안에 專攻分野가 순수철학(서양철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종교학, 지나철학(東洋哲學), 미학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처음 나는 東洋哲學을 전공하려 했지만 교수진의 부족으로 西洋哲學을 택하고 말았다. 그래서 동양철학으로는 필수로서 支那哲學史(중국철학사)와 佛敎概說 두 과목만 이수하고 말았다.

때마침 소위 大東亞戰爭이 한창이었다. 1943년(소화 18년) 卒業論文을 내고, 학교의 알선으로 淸州商業學校에 敎諭로 갔는데, 맡은 과목은 영어, 일어, 한문의 셋이었다. 그 당시에는 거의 日本軍에 志願 아니면 징용을 가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알선취직이란 명목으로 그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彷徨의 시절

나는 哲學講義를 들을 때나 졸업 후 혼자 독서 또는 사색을 할 적마다 항상 의심나는 것이 唯心論과 唯物論의 대립, 관념론과 실재론의 대립, 그것을 초극하려는 一元論이나, 또는 主客未分の 견지를 직관한다는 것 등이었는데 그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다.

6·25 이전 동국대학교 政治大學(지금의 建國大學) 등에서 철학, 윤리학 등의 강의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6·25 때를 당하여 숨어 다니다가 부득이 靑陽에 있는 동서의 집으로 식구를 데리고 피난을 갔다. 金東旭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그때였다.

9·28 收復 후 서울로 돌아오는 했지만 中共軍 100萬이 남침하는 바람에 그 해 12월에 男負女戴하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서 유유히 세월을 보내기로 하고 거기서 農校敎鞭을 잡고 있었다. 이 기간이 10년이나 된다. 그 동안 뜻밖에 南原의 李鍾九 선생을 만났다. 李先生은 早稻田大學 政經學部를 졸업한 분으로 身病 때문에 隱居하다가 出世를 체념하고 處士生活로 평생을 지낸 분이다. 시골서 사랑방을 지키다 보니, 여러 術客들과 접촉이 많아 陰陽五行說을 전공하게 되어 그 중에서도 風水地理說에 造詣가 깊었던 분이다. 처음 만나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니, 서양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찌 易理를 배우려 하나고 주저하다가 드디어 가르쳐 줄 것을 허락했다. 열심히 공부하여 1년쯤 하면 될 것이라 하기에 마음이 부풀었다. 나는 여기서 加一倍法을 배웠고 實驗도 많이 했다. 이에 寢食을 잃고 專心注力했지만 2년이 지나도 도로 아미타불이었다. 결단을 내려 地理工夫를 포기하든지 또는 다른 방도를 취하든지 해야 할 시기로 단정하고 南原으로 李先生을 방문하여 그 뜻을 토로했었다. 先生은 다시 地理探尋法을 6개 항목으로 요약해 주면서 좀더 연구해 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돌아와서 실제로 탐심해 보아도 아무런 成果도 없었다. 여기서 나는 方法論을 강구하기에 앞서 그 방법의 기만으로서의 精神統一工夫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調息法과 默照法을 병용하였던 것이다. 6개월쯤 뒤에 어느 深夜 非夢似夢之間에 모든 山川의 형체가 생동하는 心象을 체험, 그 후 약 100일간 靜坐時에는 萬化萬象을 坐視體得, 드디어 敎外別傳의 참뜻을 깨달은 느낌이였다. 이에 李先生을 다시 往訪, 그것을 보고하였더니 칭송이 자자하였다.

性理學의 연구

이렇게 陰陽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히 동양철학(中國哲學)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 그러자 함양 安義 出身 尹吉鉉氏의 소개로 延世大學 校 鄭錫海 교수로부터 동양철학 강의를 맡으라는 연락이 왔다. 처음 自信이 없어서 사양했다. 6년 후 다시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 延大에서 동양철학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 때가 4·19 나던 해(1960년)니까, 나의 나이가 42세였다. 시골로 내려가 10년만에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다 함양 출신 朴相吉 議員의 주선으로 京畿大學에 1년간 전임교수로 철학개론을 맡았다. 10년 동안 철학의 길을 우왕좌왕하다 보니 人生 虛無를 느꼈을 뿐이었다. 2학기부터는 延大에서 專任講師로 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東洋哲學을 공부해 가면서 강의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鄭錫海 선생께서는 나를 우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延大 哲學科에서 동양철학을 개척해 달라는 간곡한 言質을 주었다. 그러자 가끔 생각하기를 中國 明代의 羅整庵 같은 이는 60세가 지나서 學究生活로 들어가 드디어 一家를 이루었다는데 나는 그것에 비하면 壯年이 아니겠느냐는 自問自答도 해보았던 것이다.

先秦諸子를 비교 검토하다가 난관에 부딪친 것은 老子的 無名의 논리와 孔子의 正名의 논리와 차이점, 그리고 墨子의 天志思想과의 관계 등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解說를, 예를 들면 일본 학자로서 高名했던 宇野哲人, 小柳司氣太 등의 해설을 아무리 읽어 보아도 도무지 釋然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외에도 10여 명의 日人 학자들의 說을 두루 살펴보니, 도리어 冥冥수설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더우기 宋代 哲學에 이르러서는 周濂溪의 太極圖說, 邵康節의 皇極經世書, 張橫渠의 正蒙, 程朱의 理氣說 등 나로서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다만 日人 학자들의 解說를 그대로 의우고 내가 짐작하는 데로 강의시간만 간신히 매우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반 哲學概論을 강의 하자면 서양철학사 全般을 거의 이해하여야 했었다. 나로서는 힘겨운 일이라 핑계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었던 것이다.

전임강사 발령을 받고 東洋哲學 세 과목을 배당받았을 때 鄭錫海 주임교수는 나에게 韓國 儒學史를 강의해 보라고 말하면서 玄相允著「朝鮮 儒學史」와 李丙巖著「資料草稿韓國 儒學史」를 소개해 주었다. 도서관에서 두 책을 대출해 가지고 目次를 훑어 보니 그 범위와 深度에 처음부터 겁이 붙 自信조차 생기지 아니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기간 1년을 달라고 간청하고 그 날부터 韓國性理學研究에 전심전력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평소 懷疑했던 중국철학 전반에 걸친 難問의 해결 없이는 韓國 性理學을 해득할 수 없음을 세삼 깨달았다. 게다가 中國 佛敎哲學이란 커다란 난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며칠 생각하다가 동국대학교 佛敎學 교수였던 禹貞相兄을 찾았다. 禹교수는 내가 豫科 때 惠化洞 어느 하숙집에서 한달 동안 同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친근한 사이였다. 이에 禹兄에게 전후 경위를 이야기하고 이에 佛學의 가장 根本되는 문제 몇 가지를 質正하고 돌아와서 佛敎研究에 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쉽사리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급하면 禹兄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한번은 禹兄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도 모르는 것을 자주 물어 참 딱하구나! 차라리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이 책한테 물어보라”하면서 日語版 佛敎辭典을 주었다. 참 고마운 學兄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학창시절 때 당시 惠化專門學校 교수였던 包光스님(金映逢)은 學僧으로 유명했던 분으로 고향인 咸陽 出身이므로 자주 방문한 일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있던 僧侶學生들과도 친한 사람이 많았었지만 불교철학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사람은 固執으로 망한다더니 내가 그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고 보면 동양철학으로서의 儒道佛 三敎는 재주 없고 편협하고 고집 센 나를 괴롭힐 따름이었다. 이리저리 맞추어 가면서 講義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하나도 自信있는 것은 못 되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올 때는 항상 무슨 커다란 罪를 지은 것처럼 느끼곤 했다. 당장에 집어치우고 다른 방향으로 糊口之策을 강구하는 것만이 罪惡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해서 틈

만 있으면 가서밭을 해메듯이 求職次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는 않았다.

1961년 겨울방학이 되었다. 봄에 가족을 시골서 다 데려왔기 때문에 4남 2녀란 大部隊의 생활에 허덕이면서도 다행히 조용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내 마음은 靜中動 動中靜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 때 우연히 6년 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다름 아니다. 내가 心血을 傾注하다가 體認했던 地理陰陽說, 특히 心象에 떠오르는 明若觀火한 그 모든 것들, 지금의 彷徨과 難關도 역시 그때와 방불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端坐, 靜坐, 몸이 피로하면 臥席도 해 가면서 調息과 默照를 계속하여 보았다. 一日 비몽사몽의 恍惚, 내 감히 存養의 功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九萬里 上空을 飛上天하는 心懷였다.

이에 우리나라 性理學은 물론 宋代 性理學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니 지난날 보았던 日人 學者들의 그 論調의 適否를 다 알 수 있었고, 또 그 前後敘述의 矛盾撞着까지도 瞭然日見하였다. 이제 불안과 초조에 허덕이던 내 강의에 자신을 얻었다. 돌이켜 보건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學者들의 偏道佛三教에 대한 경이한 소개 논문조차 거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淺學非才인 나로서는 原典을 통한 충분한 理解란 바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항상 나를 괴롭혔던 物心の 구별, 인식의 適否, 一多의 관계, 事實과 가치의 차이, 神의 有無, 靈魂의 滅·不滅 등 한이 없는 의혹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西歐式 思考로 구축된 철학 체계와 철학 방법론을 가지고 東洋哲學을 이해하고 해명해야 하는 것은 현대로서는 또한 勢의 當然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能事畢이 못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日人들이 번역한 哲學이란 말은 Philosophieren으로서 愛智의 學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思索(Denken)의 產物이다. 따라서 각자의 사색에 따라서 자기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理性이란 普遍性이 있기 때문에 상호 共通性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立場의 상이에 따라서 方法論도 달라지게 마련인 것은 또한 否認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것

이 Hegel이 말한 바 西洋哲學史는 愚者의 畫廊이었다. 그러나 東洋哲學은 思索도 必須이지만 끝에 이르러서는 言語道斷의 경지로써 사색만으로는 안 된다고 본다. 儒의 存養省察, 道의 廻光返照, 佛의 卽身成佛 등의 修爲方法은 理論의 사색으로는 성취 못하는 것이다. 지난날 대학 시절에 들었던 田邊重三 教授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가 Hegel이나 Brentano를 강의할 적에 종종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哲學이란 각자가 자기의 構想한 내용을 合理化하여 전개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막히면 그때는 論理를 무시하고 飛躍함으로써 마지막 꼭대기인 神에다가 갖다 붙인다. 이것이 哲學일까?”

退溪哲學의 연구

韓國儒學史의 강의안을 만들다가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것은 주로 退溪學의 理氣互發과 栗谷學의 氣發理乘一途의 차이를 선명히 分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宋代哲學을 연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理氣의 개념을 定立해야 하므로 1962년 6월에 “理氣論에 對한 考察”이란 논문을 延大「人文科學」에 발표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退溪哲學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退溪哲學은 物心二元論의이고, 栗谷哲學은 物心一元論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退溪는 朱子의 이른바 理之發과 氣之發을 근거로 함으로써 理氣互發說을 수립하였고, 栗谷은 朱子의 이른바 理無造作 즉 理의 無形無爲를 근거로서 氣發理乘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 退溪哲學은 兩賢의 窮理盡性과 存心養性の 차이로 말미암아 달라진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후학들은 다만 知的·이론적으로만 양현의 학설을 이해함으로써 자자 그들의 先入見을 그들의 입장에서 固守하면서 양학설을 비교 논급하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退溪의 입장을 찬성하는 편에서는 朱子도 退溪와 같은 입장이라 보고 朱退를 連發함으로써 퇴계를 朱子의 正統이라 주장하게 되고, 이에 반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栗谷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은 朱子 역시 栗谷과 같은 입장이라 보고, 이에 栗谷을 오히려 朱子의 正脈이라 단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退栗이 사용했던 理氣나 性情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우기 主理와 主氣를 절충하려는 이른바 中間派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理氣를 혼동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따름이다.

생각컨대 理氣性情 4자에 대해 퇴율은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처음 程朱學으로써 퇴율학을 이해하려고 고심했지만 그 이해의 열쇠를 얻지 못했다. 이에 겨우로 退栗學을 가지고 정주학을 이해해 보려고 했었지만 역시 失敗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퇴율을 각기 分離하여 퇴계의 입장과 울곡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던 나의 모든 철학적 概念을 정리하여 보기로 했었다.

이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일본 京都大學 교수 田邊元 博士의 「哲學通論」이었다. 물론 그 「철학동론」 책은 서양철학사를 압축한 것으로서 하나의 論理學처럼 體系化한 것이다. 그러나 그 체계화는 역시 서구식 辨證法을 넘어서려는 그들의 絕對辨證法의 논리로 종결지은 것이었으므로 矛盾律로부터 同一律로 가려는 것이었고, 특히 觀念辨證法과 唯物辨證法의 모순대립을 초극하지 못하는 것은 변증법 자체의 폐리라고 주장하면서 田邊 教授는 드디어 양변증법의 종합지양이라 하여 道德的 實踐에서 心物의 종합동일이 비로소 달성되므로 여기서 觀念辨證法과 唯物辨證法을 지양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여기서 다시 宋學의 근본을 검토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根源으로서의 儒와 道를 재음미하기 시작했었다. 그때 나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物心을 本體로 보아야·하느냐 現象으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였다. 그러나 나의 非才로써는 해명이 되지 아니하였었다. 이 彷徨에서 나는 哲學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내 全體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오라기의 曙光을 잡았던 것이다. 내 감히 存養의 功을 謔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所信을 이름으로써 비로소 自足を 느끼게 되었던 것이 바로 退栗哲學의 차이를 알아냈던 때부터였다. 그리하여 그 차이를 自得한 후 宋學을 다시 보며 그 뜻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明學 특히 羅整庵과 王陽明의 철학

도 짐작이 갔다. 이때 京畿大學에서 철학개론의 강의를 맡아 보던 중 철학 교재를 만든다 하여 나에게 철학개론의 원고를 부탁하기에 승락하고 집필하기 시작, 탈고한 것은 1963년 겨울이었다. 1964년 봄에 「哲學概觀」이란 이름으로 宣明文化社에서 출판했다. 여기서 나는 東西哲學의 비증을 같이하고, 또 서로 대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몇해 후 선명문화사가 폐사되었기에 1972년 同和文化社에서 인수하여 「哲學概論」으로 책명을 바꾸었던 것이다.

韓國性理學의 정리

1972년 延大 文科大學 附設 人文科學研究所에서 당시 소장이던 金東旭 교수가 인문과학연구비로 「韓國儒學의 本質」에 대해 연구논문을 써보라고 하기에 쾌락하고 자료 정리에 착수한 것은 석달 뒤인 6월 25일부터였다. 무더운 하기방학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대 도서관의 특별대출의 매려로 말미암아 한국성리학에 관련된 古書 3천여 권이 내 연구실을 드나들었다. 9월말까지 그 작업을 거의 마치고, 그 발췌한 자료를 정리한 것은 10월이었다. 그리고 논문 제목에 맞추어 쓰기 시작한 것은 1973년 정월이었다. 그런데 논문의 量과 자료의 발췌가 너무 많아 인문과학에 한 편의 논문으로 실기가 어려워 金教授의 同意를 얻어 單行本으로 낸 것이 1974년 10월 15일에 「韓國儒學史」란 책명으로 연세출판부에서 나왔다. 이 책이 1975년 1월 16일에 韓國日報出版文化賞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다 1979년 2월에 回甲을 맞이하게 되어 그 동안에 쓴 논문을 모아 紀念으로 한 것이 「韓國儒學의 課題와 展開(I)」이었고, 다음 해 3월에는 그 (II)를 出刊했다. 이러다가 보니, 人生無常이라 어언간 65세 停年을 당하여 延大를 물러나게 되었는데 매마침 圓光大學校의 초빙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대에는 24년간 재직할 셈이다. 1985년에 연대 재직중 쓴 논문을 총정리하여 세 권의 책으로 출간한 것이 「韓國儒學의 哲學的 展開」上·中·下 세 권인데, 다행히도 이것으로써 平和教授協議會 아카데미賞을 받게 되었다. 內心으로는 송구스러울 뿐이었다. *